

경제

중업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일변도 왜?

美 컨소시엄 “대우건설 인수 재도전”

해묵은 ‘노노갈등’... 회생 걸림돌

PD·NL계열 선명성 경쟁... 자금 수혈 차질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사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리해고 대신 상여금 삭감’이라는 고통분담 차원의 사측 구조조정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이들은 사사간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 탄핵도 불사했다. 지난해 10월 현 집행부가 임금 동결 등 임금협상에 동의하자 민노회 소속의 일부 노조원들이 정투위(정리해고 철폐·명예회복·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임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을 놓고 두 조직으로 나뉘어 견제하고 다투다보니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 노조원은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노조가 버텨 뭉개어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스스로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TR아메리카, 인수의향서 다시 제출

미국계 투자 컨소시엄인 TR아메리카가 대우건설 인수에 다시 도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TR아메리카가 최근 대우건설 인수의향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작년 하반기에 제출한 의향서 내용과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금 모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향상에 실패했다. TR아메리카는 당시 대우건설 지분 50%+1주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R아메리카의 대우건설 투자단은 조만간 방한해 정부 관계자와 채권단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채권단이 제시한 출자증권 등의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 등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호그룹의 구조조정과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금형업체 수주 상담차 광주 방문

박광대 시장은 16일, 광주금형산업진흥회와 수주상담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멕시코 마그나 오토택의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금형산업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마그나 오토택은 종업원 1천200명에 연 매출 3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기업으로, 광주 지역 금형업체의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계약업무 협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인해 KTDC 대표, 에드가르 키에코 마그나 오토택 영업분야 부사장, 리우리아 살바토레 마그나 오토택 기술분야 부사장, 박광대 광주시장, 김성봉 사단법인 광주금형산업진흥회장, 조철연 주식회사 에스디엠 대표. /홍행기기자 redplane@

삼성 휴대전화 북미시장 석권

작년 4천850만대 공급... 점유율 25.7% 1위 올라

삼성전자가 지난 1997년 북미 휴대전화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 1위 자리에 올랐다. 16일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사상 최대인 4천 850만대의 휴대전화를 출하하면서

25.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의 맹주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지난 1997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2008년 3천990만대의 출하량

과 22.1%의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던 모토로라는 지난해에는 3천30만대, 16.1%의 점유율로 삼성은 물론 LG전자(3천950만대, 20.9%)에 게도 뒤져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연간 기준 출하량 4천만대를 넘어서고 시장 점유율 25% 이상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MPV ‘벤가’

독일 시승평가 1위

기아자동차의 다목적차량(MPV) ‘벤가’가 독일의 양대 자동차전문지로 꼽히는 아우토틀트(AutoBild)와 아우토포모트스포츠(Auto Motor und Sport)의 소형 MPV 비교시승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 386억 최고

박삼구 회장 제로배당 될듯

올해 10대 그룹 총수들이 상장사 지분 보유로 지급받을 배당금 총액이 1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17일 2009 회계연도 배당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최소 1천393억2천 원 배당금을 받았을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올 10대그룹 총수 주식 배당금

이건희 회장 386억 최고

박삼구 회장 제로배당 될듯

올해 10대 그룹 총수들이 상장사 지분 보유로 지급받을 배당금 총액이 1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17일 2009 회계연도 배당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최소 1천393억2천 원 배당금을 받았을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코스피지수

1,601.05 (+7.39)

코스닥지수

508.95 (+5.07)

금리 (국고채 3년)

4.12%

원·달러 환율

1,151.50원 (+0.20)

를 명예회장은 지난해 13억7천만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올해는 그룹 구조조정 회오리와 계열사 경영난으로 무배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Market data box containing indices like KOSPI, KOSDAQ,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삼성 “금리 1%P 오르면 연 이자부담 7조원”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소 이태환 수석연구원은 16일 “신(新)3고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금리 상승 시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분을 이같이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올 경우 가계는 연간 이자부담이 5조2천억원 늘어나 순 이자부담이 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 이자부담이 6조6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이자수입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순 이자부담이 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저소득층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 쪽에서 보유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중·저소득층의 소비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properties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펠리스타워빌딩' (Suwon Lotte Mart Front Pelis Tower Building) with floor-by-floor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Real Estate Company) featuring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locations.